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해, 여순희생자 연관 조사 시급

유해 중 제주 4·3 희생자 포함... 여순사건 당시 광주교도소 수감되기도 시기·거리상 전남 희생자 있을 가능성 높아 유전자 대조 작업 서둘러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된 무연고자 유해 261구 중에 제주 4·3사건(1947-1954년) 희생자의 유골이 확인됐다.

같은 시기에 발생한 10·29 여순사건(1948년) 관련자도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기록이 다수 확인된 만큼, 무연고자 유해 중 여순사건 희생자(행방불명자)가 있는지 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지난 7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자 유해와 제주4·3사건 유족의 유전자(DNA) 정보를 대조한 결과 유해 1구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유해는 양성홍 제주 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

장의 할아버지인 양천중씨(1898년생)로 확인됐다.

제주4·3사건 당시 농부였던 양씨는 군인이 제주 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을 자행하자 산에서 피신 생활을 했으며, 1949년 7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12월 5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지난 201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인근 무연고자 합장묘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은 유해 261구를 발견했다. 유해는 콘크리트 함에 담겨 있거나 봉분 흙더미에 파묻힌 상태였다.

조사위는 이 유해 중 일부가 5·18 행방불명자 또는 암매장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유해들이 1980년 이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청과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6월 5·18진상조사위로부터 광주교도소 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전달받아 기존에 확보해 둔 제주 4·3 행방불명자 유족들의 유전자와 대조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지난 9월 양씨의 유전자 신원이 확인됐으며, 제주도청은 유족들에게서 추가 체열을 거쳐 정밀 감식한 결과 지난 7일 양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발굴 당시 "1970년대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교도소가 이전해 올 때 합장된 무연고자 유골들의 일부"라는 일부 5·18 관계자들의 주장(2019년 12월 20일자 광주일보 온라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유골 40구 발견...법무부, 5·18 연관성 조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제주 4·3 희생자 유해 확인을 계기로 무연고자

유해 중 10·29 여순사건 희생자(행방불명자)가 있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 발생 시기가 겹치는데다 여순사건 당시에도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이 있으며, 거리상으로 제주 지역 희생자보다 전남 지역 희생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문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활동을 하고 있는 여순·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가 유전자 대조 조사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여순사건위는 출범 후 2년이 지나 지난달 5일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유족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여순사건위는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옥천골 야산 암매장지 희생자와 관련된 유족 100여명의 유전자를 수집할 계획을 세웠을 뿐이다.

여순사건위 관계자는 "그동안 유해발굴로 4억원

의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2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모든 유족들의 유전자를 확보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행용 여순10·19 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제주 4·3 희생자의 유해가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됐다면, 시기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또한 같은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여순사건위를 통해 희생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라도 유전자 대조 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고령 유족들이 한 분이라도 유해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희생자-유족 결정 또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기준 여순사건위는 총 7465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해 1884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희생자 1587명과 유족 6474명이 결정됐으며, 희생자 중 308명이 행방불명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기초의원들도 딥페이크 피해

불법 합성물 담긴 협박성 메일 받아... 경찰 수사 나서

광주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Deepfake)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메일에는 의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물이 첨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 것이다. 당장 연락하

기 바란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에는 현재 1건만 접수됐지만, 일부 광주지역 기초의원들도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의원으로, 용의자는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원 증명사진을 집대어서 여성을 안고 있는 남성의 얼굴에 합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피해사례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래에 내가 다닐 대학교 둘러봐요 12일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캠퍼스 투어에 광주 금호중 1학년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기 주도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8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

광주경찰, 18명 구속

판돈 수백억원이 오가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40대 A씨와 사이트개발자, 관리자 등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도박공간 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표통장 유통업자 등 관련자 79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140명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고 이 중 64명에 대해서는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치유 재할을 연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판돈 889억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9곳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표통장과 대표폰을 사용했다.

사무실은 제주도를 기반으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다니며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사무실에 드나드는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 2000만원을 압수한데 이어 계좌 26개를 지급정지 조치하고 범죄수익금 41억원을 기소 전 추정 보전했다.

경찰은 일부 공범이 해외로 달아난 정황을 포착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추가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서 가중 처벌

광주고법, 징역 10년→15년 선고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 가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주거지에서 배우자 B(8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녀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고 집에 도착한 자녀가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딸다

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징역 10년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부싸움 중 핏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2만 20여년간 사실혼 사이로 함께 지내온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